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대동강

# 대동강을 팔아 버린 봉이 김 선달

조선 시대 때 평양에 봉이 김 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 선달은 피가 많고 말재주가 좋았습니다. 욕심 많은 양반이나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어찌나 잘 속이는지 평양에서 봉이 김 선달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김 선달이 평양 거리를 나섰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한결같이 얼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다들 표정이 밝지 않지?”

김 선달은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 보았습니다.

“여보게, 우리 고을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 모두들 우겨지상을 하고 있으니 말일세.”

“선달님도 참……. 짚신이 닳도록 돌아다니시는 분이 소문 못 들으셨어요?”

“응, 내가 한양에 불일이 있어 갔다가 두 달 만에 돌아왔거든. 그 사이에 우리 고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 시원히 말해 보게나.”

“알겠습니다. 선달님이 두 달 전에 평양을 떠나셨다고 하니 바로 그 무렵이 되겠군요. 한양에서 장사꾼 네 사람이 평양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농가를 돌아다니며 쌀을 모조리 사들였어요. 마침 추수를 마쳤기에 농부들은 기쁜 마음으로 쌀을 팔았지요. 그런데 얼마 뒤에 난리가 났어요. 한양 장사꾼들이 쌀을 몽땅 사들였기에 쌀값이 다락같이 오른 거예요. 한양 장사꾼들이 쌀을 창고에 쌓아 놓고 풀지를 앓았어

요. 쌀값이 계속 오르기를 기다린 것이지요.”

“저런 못된 놈들이 있나? 쌀을 비싼 값에 팔려고 모조리 사들였구먼.”

김 선달은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이죠. 한양 장사꾼들은 쌀값이 몇 배나 오르자 그제야 쌀을 창고에서 풀었어요. 결국 평양 사람들은 비싼 값에 쌀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요즘 쌀을 살 수가 없어 굶고 지낸답니다.”

“흠, 그런 일이 있어서 평양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군그래.”

김 선달은 사연을 듣고 나자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이 괴씸하네. 자기들 뱃속을 채우려고 평양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어디 두고 보자. 이놈들을 골탕 먹이고 알거지로 만들어 주마!’

김 선달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김 선달은 평양의 물장수들을 대동강 근처에 있는 단골 술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물장수들은 날마다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 평양의 양반집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양반집에서는 대동강 물로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했습니다. 대동강 물로 빨래를 하면 때가 잘 빠지고, 목욕을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 오게 하거나 물장수들에게 물을 사서 썼습니다.

물장수들은 김 선달과 친했습니다. 김 선달은 평소에 자주 대동강에 놀러 나갔는데, 그 때마다 스스럼없이 물장수들과 어울렸습니다. 다른 양반들과 달리 김 선달은 자기들을 잘 대해 주었기에 물장수들은 김 선달을 믿고 따랐습니다.

“선달님,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왜 대동강에 나오시지 않았나요?”

“응, 불일이 있어 두 달 동안 한양에 가있었거든. 내가 자네들을 부른 것은 키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라네.”

“그러세요?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선달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 드리지요.”

“고맙네. 무슨 부탁이나 하면…….”

김 선달은 미리 준비해 온 동전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장수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대동강 물을 뜨러 오면 ‘물 값이요.’ 하고 내게 동전 한 닢씩을 던져 주고 가계. 내가 대동강 가에 자리 잡고 앉아 있을 테니 말이야.”

“아주 쉬운 일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밤에 또 이 술집에서 만나도록 하지. 내가 동전을 나누어 줘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키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달은 대동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동강 가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뒤, 물지게를 진 물장수들이 대동강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동강 물을 물통에 가득 채우고는, 물지게를 지고 김 선달 앞을 지나가면서 ‘물 값이요.’ 하고 동전 한 닢씩을 던져 주었습니다.

김 선달은 물 값을 받으면서 한양 장사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동강은 워낙 경치 좋은 곳이니 바람을 쐬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양 장사꾼들은 그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오겠지 했는데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선달은 속이 탔습니다.

‘왜 한양 장사꾼들이 안 오지? 벌써 한양으로 가버렸나?’

한양 장사꾼들이 나타난 것은 김 선달이 대동강 가에 자리 잡고 앉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천천히 대동강 가를 거닐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물장수들이 물지게를 지고 가다가 ‘물 값이요.’ 하고 김 선달 앞에 동전 한 닢씩을 던져 주고 가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참 편하게 돈을 버네. 물 값으로 동전 한 닢씩을 받고 있어.”

“대동강 물은 일 년 내내 흐르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하루에 수백 명이 물을 사기도 그게 모두 얼마야. 한 지계에 한 냥이니 하루에 수백 냥은 거뜬히 벌겠는걸.”

한양 장사꾼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김 선달을 부



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대동강 주인인가 봐. 물장사를 하여 돈을 갈구리로 굵고 있구먼.”

“우리도 저런 장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될걸.”

“우리라고 저런 장사를 하지 말란 법이 없지. 우리가 저처럼 한테서 대동강을 사 버리면 되잖아.”

한양 장사꾼들은 김 선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대동강 주인이신가 본데 언제부터 이런 장사를 하셨소?”

김 선달은 이들이 한양 장사꾼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요놈들, 잘 걸렸다!’ 하고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장수를 했지요. 나는 아버지에게 이 강을 물려받아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대요.”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대동강을 우리에게 팔지 않겠소? 좋다고 하시면 당장 값을 치르겠소.”

김 선달은 어이없다는 듯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팔지 않겠소. 대동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가보요. 그것을 남에게 넘길 수 없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파시오. 값은 부르는 대로 드리겠소.”

한양 장사꾼들은 평양에서 쌀장사를 하여 떼돈을 벌었습니다. 대동강을 손아귀에 넣는다면 그 돈을 다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선달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 하더니 큰 인심을 쓰는 듯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좋소! 나도 양반 체면에 장사를 해 오느라 께름칙했는데, 당신들에게 대동강을 넘겨드리지요. 딱 잘라 10만 냥만 내시오.”

10만 냥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양 장사꾼들은 값을 깎자고 하면 김 선달이 대동강을 팔지 않겠다고 할까 봐, 군말 없이 그 값을 치렀습니다. 쌀장사를 하여 번 돈에다가 한양에서 가져온 밀천까지 모두 털어 주었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대동강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장사를 하면 수십 배, 수백 배 이익을 남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장사꾼들은 대동강 가에 돛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장수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물장수들이 물지게를 지고 한양 장사꾼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져 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물 값을 내야지 왜 그냥 가는 거요?”

“물 값이라뇨?”

“오늘부터 주인이 바뀌었소. 우리가 대동강 주인이니 물 값으로 동전 한 닢씩을 내고 가시오.”

“당신들이 대동강 주인이라고? 오래 살다 보니 별 해괴한 소리 다 듣겠네. 대동강 주인이 어디 있소? 나는 10년째 물장수를 하지만 물 값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소. 아무나 길어 먹는 대동강 물을 돈 주고 사 가라니 당신들 미친 것 아니요?”

그제야 한양 장사꾼들은 김 선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떼돈을 벌려다가 가진 돈을 모두 날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붕이 김 선달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붕이 김 선달은 대동강도 팔아먹는다.’며 그에 대한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